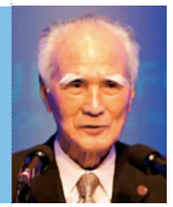

[기조연설]

화해의 첫걸음은 진정한 사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서로 협력하며 지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을 통해 전쟁 국가에서 평화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만, 그에 걸맞은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전후 50년이 되던 해에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저는 '무라야마 담화'로 알려진 총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책을 잘못 펼쳐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는 역사인식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청나라에서 빼앗은 것은 1894~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이며, 한국을 점령하고 강제적으로 병합한 것은 1904~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의 반성은 청일·러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50년간 일본의 전쟁 시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제가 총리를 사임한 후 일본의 국시(國是)로서 자유민주당의 역대 총리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민주당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 병합 100년 총리 담화를 발표하여 식민지 지배 반성을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말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 목표를 표방하며 등장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저도 매우 우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베 총리도 무라야마 담화 계승을 표명하기에 이르러, 작년 8월에 전후 70년 아베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베 담화는 제 담화보다 훨씬 길며 복잡합니다. 아베 담화는 "세계 대공황 이후 세계의 대세를 따라잡지 못한 일본은 만주 사변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갔다. 진로를 잘못 잡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15년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담화는 러일전쟁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웠다"고 평가하고,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청일·러일 전쟁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만,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를 절반 정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한반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계속해서 일본의 국시(國是)로서 그 생명력을 이어나갈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은 원칙적인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속죄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지난 25년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해결이 촉구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재선거 때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고노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출마했습니다. 때문에 아베 총리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한일관계가 붕괴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대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10억 엔을 한국정부에 기탁하는 것으로 하여, 지난해 12월 말 한일 외무장관 합의 발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어 한국의 피해자와 운동단체에 받아들여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화해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28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 발표로 표현된 아베 총리의 사죄 의지를 편지로 작성하여,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의 총리 시절 내각에서 마련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피해자 대부분이 거부한 아시아여성기금에서도 하시모토, 오부치, 모리, 고이즈미 총리가 자필로 서명한 '사과의 편지'를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리의 사죄 의지를 표현한 편지를 주한대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으로 상당수 병상에 계신 피해자 분들께 가슴을 울리는 사죄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전에 기시다 외무대신을 방문하여 이러한 취지를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논의와 양국 정부 협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50년 전쟁이 심각한 상흔을 남긴 이 지역에서는 그 후에도 약 30년간 중국 내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인공위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입장은 자꾸 악화되고 있으며 제재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나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북한의 핵병기는 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판단 착오를 범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일본에도 날아오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일본도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 북한, 일본이 치명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충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은 국교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식민지 지배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무관하게, 일본은 이웃나라와 대립한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혜를 내고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국교를 맺고 선린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일 간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어 배의 왕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열게 된다면 남북의 진정한 교섭에도 좋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진정된 상태입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이 섬 주위에서 대단한 긴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는 도서 방위 방침이 주어져 유사시 미군의 협조 약속을 얻어내고자 아베 정부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 할 말이 있는 만큼 영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평화 국가가 되었을 때 일본이 행한 것은 일중부전(日中不戰)의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센카쿠 열도를 일중이 공동 개발하여 평화의 섬으로 만든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생각은 일본국 헌법이 가리키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70년간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길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발언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용이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각국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베이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천안문 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저에게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패권을 원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다면 일본과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힘을 합쳐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조연설]

전쟁을 범죄로 여기는 것이 곧 문명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이 포럼에 연사로 초대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전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살인을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전쟁을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몇 백만 명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7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기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라면, 그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갈등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노라면, 우리는 범죄에 대한 진보적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간주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엉뚱한 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범죄로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난 7000년간 전쟁을 해왔고 오늘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 모든 공동체가 노예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노예제는 범죄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 노예제가 존속할 수도 있지만, 노예제는 이제 범죄입니다. 세계가 노예제를 범죄로 인식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노예제보다도 나쁘기 때문에 전쟁도 범죄라는 사실은 세계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황폐화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국가 간 분쟁이 생기면